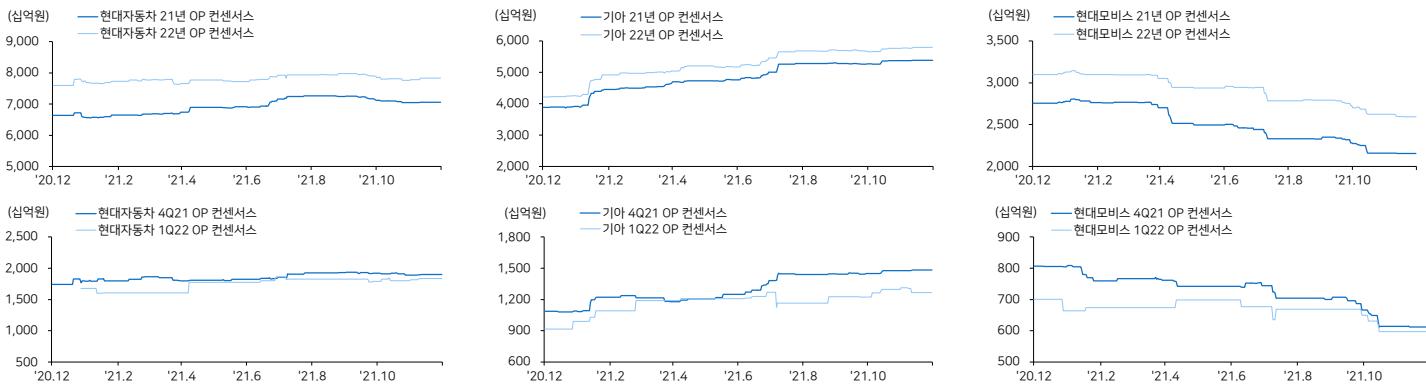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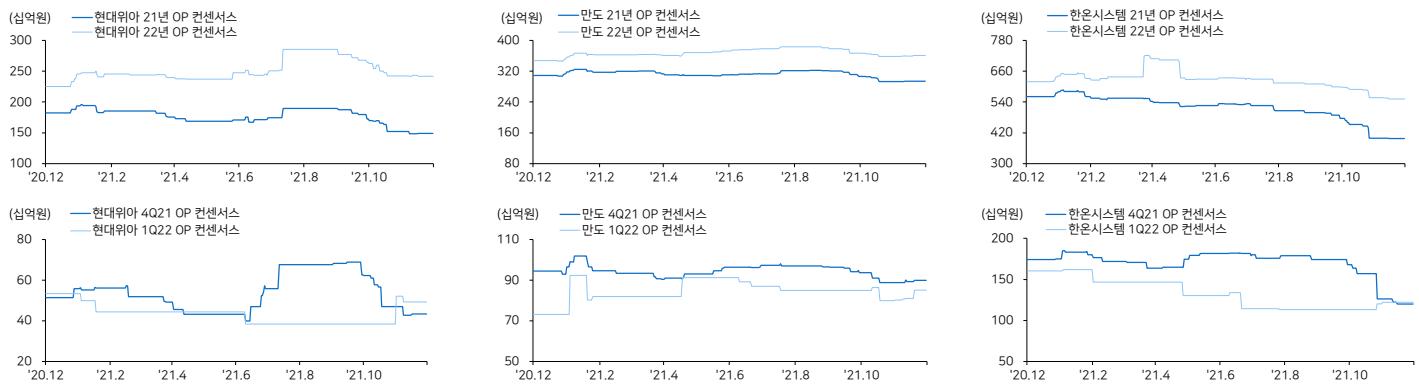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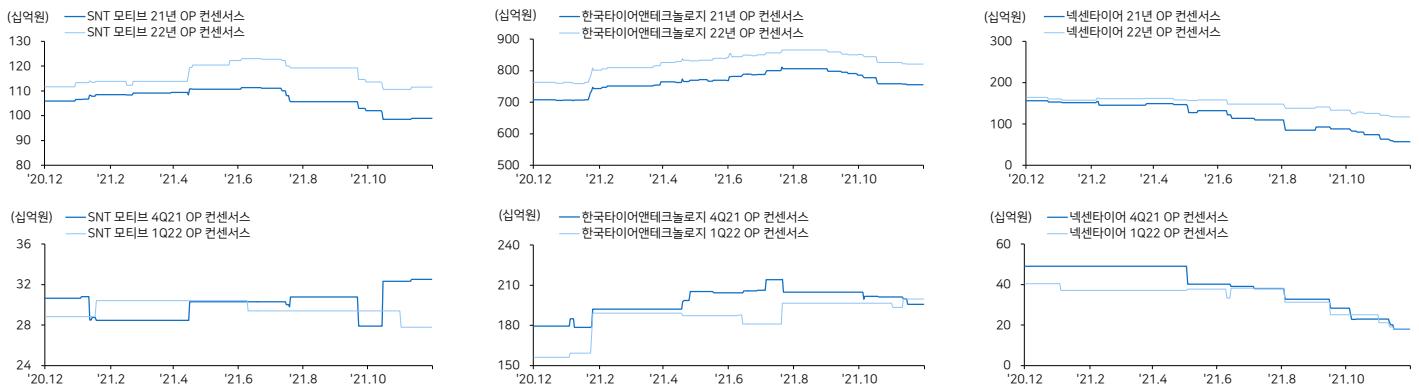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테슬라에 안방 내주다니…현대차, '아이오닉5' 떡에 웃었다 (한국경제)

현대차가 제조한 전기차는 올 1~11월 누적 2만 395대(상용 모델 제외)가 판매돼 테슬라를 누르고 국내 판매 중인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함. 테슬라는 1만 7818대로 2위, 기아는 1만 6091대로 3위를 각각 기록함.

<https://bit.ly/3m68eHQ>

타이어 바꿔…현대차, 결국 한국타이어에 등 돌렸다 (한국경제)

한국타이어 노루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남품 차질이 발생하자 주요 고객사에 등을 돌리기 시작함. 국내 최대 고객사인 현대자동차는 일부 차종에 기존 한국타이어 대신 경쟁사인 금호타이어 제품을 장착하기 시작.

<https://bit.ly/3dP8x5d>

Toyota to Invest \$35 billion into battery-powered EVs and roll out 30 models by 2030 (CNBC)

토요타는 '30년까지 30개의 BEV 모델 라인업 구축을 위해 4조 원(35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 '30년까지 글로벌 BEV 판매량 350만대를 목표. 배터리 선박과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제품과 수량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https://cnb.cx/3GJkCP1>

RV industry rolls through U.S. shortages, inflation (Reuters)

RV(recreational vehicle) 기업은 COVID-19 기간동안 기록적인 실적 상승을 달성. 미국인들이 모텔이나 머물거나 비행기를 탈 위험 없이 여행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 북미 RV 도매 출하량은 올해 602,200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https://reut.rs/3GAUtl0>

현대차·기아, 美 전기차 점유율 4.06% '4위'…내년 2위 노린다 (THE GURU)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톱4'에 올라섬. 현지 전기차 시장 규모가 거듭 성장하는 가운데 양사 E-GMP 기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가 가세함에 따라 향후 '톱3' 진입도 기대됨.

<https://bit.ly/325Z6jO>

시작도 안한 애플과 '위티'…'실패의 전당' 이름 올릴까 (글로벌이코노미)

블룸버그는 자율주행 배터리 시스템 엔지니어 알렉스 클라라벳, HW 엔지니어 스티븐 스피티리, 마이크 슈케우치 이사가 '이차 배터리에이션' 사로 이직했다고 보도함. 당초 목표한 '25년 출시 애플'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진단함.

<https://bit.ly/31Z2Xri>

Mexico may appeal 'discriminatory' U.S. EV tax credits (Reuters)

멕시코 대통령 Lopez Obrador는 정부가 보조금이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 규칙을 위반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WTO 항소 역시 고려 중임을 밝힘.

<https://reut.rs/3oT3hDR>

NIO teases image of new model ahead of reveal at NIO Day 2021 (electrek)

중국 EV 자동차 제조사 NIO는 이번 주 후반 상하이에서 열리는 NIO Day 2021 행사에서 새 모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 일반적으로 연례 행사에서 새 모델을 공개하며, 이번 공개 모델은 ET5로 예상됨.

<https://bit.ly/3DWo5i0>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